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 무역의 추이와 특성

장 영 / 중국 길림성 사회과학원 남북한연구소 소장

한 반도와 인접해있는 중국의 동북지구는 지난 19세기 말부터 이미 한반도와 국경지대 무역을 행해왔다. 중국과 한반도의 국경지대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물물 교환의 방식으로 양측의 농수특산물 등 서로 보완적인 민간 무역을 하였다.

194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정부와 中華人民共和國 정부가 차례로 수립되고 중국과 북한간에 50년대 이후 국경지대 무역이 공식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60년대 중반에 중국에서 文化大革命이 일어나 중국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이 중단되었다. 1981년부터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 무역은 다시 회복되고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왔다.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 무역이란 중국의 동북지구에 있는 흑룡강, 길림, 요녕 등 3省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과의 변경 무역이다. 그 가운데 흑룡강省과 북한의 무역은 길림省 국경지대 무역 기구가 대행해왔다.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 무역은 주로 길림省·요녕省에서 행해지고 있다. 길림성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북한의 함경북도, 자강도, 양강도 등 3 개 도와 국경을 인접하고 있으며, 국경선 길이는 1,205.9 km이다. 요녕성은

압록강을 건너 북한의 평안북도, 자강도 및 신의주와 서로 인접하고 있으며, 국경선 길이는 210 km이다.

1981년부터 중국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이 다시 시작된 후에 중국이 대외 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중국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은 날이 갈수록 급속도로 발전해왔다. 북한과 국경지대 무역을 할 수 있는 중국측의 기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동시에 양측의 무역액도 신속히 늘어가고 있다.

본 고에서는 길림성을 위주로 중국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 발전 과정의 구체적 소개, 그 발전 전망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고불고불한 발전 과정

중국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1954년 8월에 중국 정부 대외무역부는 '연변 주민들의 해산물 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와 북한 변경지대의 지방 무역 개방'을 허가하였다. 같은 달에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북한 국경지대무역대

표단의 방문을 접대하였다. 그해 10월 19일에 중국 길림성 정부의 대표자인 중국식품공사 길림성연변분공사는 북한 정부의 대표자인 북한무역회사와 '물자교환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이 계약서에서는 중국과 북한간의 무역 방식이 '물자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고 무역액은 중국 인민폐로 결산하며, 물자 교환 장소를 중국의 도문시, 북한의 남양, 회령, 경원, 무산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당시에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물품들은 주로 식량, 종이, 보온 메리야스 상의·바지 등이며,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물품들은 주로 해산물과 사과 등이다. 1954년에 양측의 수출입 계약액은 82.7만 원(중국 인민폐, 이하 동일), 완수액은 65만 원이다. 1955년에 중국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은 1954년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956년부터 중국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에서 중국측 대표자는 연변조선족자치주와 관계된 중국대외무역총공사로 바뀌었다.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국경지대의 무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북한과의 국경지대 무역을 국가가 통제하게 된 후 변경지대 주민의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58년부터 연변조선족자치주가 북한 함경북도와 소액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요녕성은 북한과 국경지대 무역을 하기 시작하였다.

50년대에 중국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

액(수출입 총액)은 모두 916.6만 원(계약액)이고, 실제 집행한 무역액은 755.6만 원이었다. 무역 방식은 대등한 물물 교환 무역으로 수출액과 수입액이 각각 절반씩 차지하였다. 50년대에 길림성과 북한간에 국경지대 무역을 한 연도는 오직 1954년, 1955년, 1958년, 1959년 등 4개 연도밖에 없었다. 매년 평균 무역액은 중국 인민폐로 188.9만 원인 셈이다.

60년대에 들어와서 길림성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은 여전히 물물 교환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구소련 화폐 루블로 결산하도록 하였다(환율은 1 루블 = 중국 인민폐 0.95 원). 길림성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액은 중국 인민폐로 1960년에 122.8만 원이고, 1961년에 148.1만 원이다.

1962년부터 길림성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은 다시 루블로 결산하지만, 구소련이 새로운 루블을 사용하게 되어 1 루블은 4.22 원으로 바뀌게 된다. 그후 길림성과 북한간의 무역액은 부단히 늘어나고 있다(〈표 1〉 참조).

1960년부터 1966년까지 길림성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액은 중국 인민폐로 환산하면 합계 1,217.4만 원으로서 매년 평균 147만 원이었다. 1966년에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진행되는 바람에 중국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은 단지 그전에 협의했던 미완성 부분을 집행하는 것외에 새로운 국경지대 무역

〈표 1〉 60년대 중국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액 추이

(단위: 만 인민폐)

연도	무역총액	수출액	수입액	수지
1960	122.8	84.5	38.3	46.2
1961	148.1	50.4	97.7	-47.3
1962	132.4	67.9	64.5	3.4
1963	122.2	57.7	54.5	3.2
1964	222.1	121.3	100.8	20.5
1965	286.1	180.5	105.6	74.9
1966	197.1	109.3	84.8	24.5
합계	1,217.8	671.6	546.2	

자료: 김립성 대외무역청.

계약을 맺지 않았다.

1968년에 북한은 중국에 12.3만 원의 물자를 수출하였는데, 이것은 1966년의 계약서 가운데 미완성 부분을 충당하는 것이었다. 1969년에 북한측이 중국과 1966년 및 1968년의 국경지대 무역을 결산할 때 86.1만 원의 새로운 국경지대 무역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따라 중국이 북한에 수출할 금액은 48.8만 원이고, 북한으로부터 수입할 금액은 42.3만 원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60년대의 중국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양측의 국경지대 무역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규모가 전반적으로 그리 크지 않았다. 둘째, 중국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수지는 주로 중국측이 흑자를 내고 있는데 흑자액은 모두 무상 원조로 처리하여 회수하지 못했다. 셋째, 60년대에 중국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에서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물품은 주로 식량, 보온 매리야스 상의와 바지, 양말 등 방직물, 종이(학생용 노트 및 각종 종이), 염료, 도료, 전자제품 등이고, 북한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은 주로 해산물(명태, 낙지, 해삼, 해채 등), 사과 등이다.

60년대 중국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은 국경에 인접하는 지역의 수많은 주민들의 특산물 수요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경에 인접하는 지역의 경제발전과 번영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70년대에 들어와서 중국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은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 그 원인은 주로 중국에서의 '문화대혁명'으로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이었다.

80년대 이래 중국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

80년대 이후 중국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은 다시 회복·발전되어왔다. 1981년 12월에 북한 무역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고 양국의 국경지대 무역을 회복하는 데 합의하였다. 1982년부터 중국과 북한은 또 국경지대 무역계약서를 체결하고, 다시 시작된 국경지대 무역을 스위스 프랑으로 결산하도록 하였다. 다시 회복된 중국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국경지대 무역을 하는 기구와 무역 규모 및 무역 조건도 이전보다 크게 변화되었다.

국경지대 무역을 하는 중국측 기구를 보면, 50년대와 60년대 초에는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식품공사와 있었으며 후에 연변조선족자치주무역공사로 바뀌었다. 80년대에 들어와서 1982년에 북한과 국경지대 무역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연변조선족자치주무역공사 외에 渾江市 商業局과 장백조선족자치현 변무공사도 있어 모두 세 개 기구로 늘어났다. 1985년에 훈춘, 도문, 용정, 화룡, 안도, 통화 등 6 개 현·시의 대외무역공사도 북한과 국경지대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86년에 또 무송현, 집안시의 대외무역공사도 북한과 국경지대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1987년에 길림성진출구공사도 북한과 국경지대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까지 길림성측에 모두 12 개 기구가 북한과 국경지대 무역을 할 수 있었다.

이 기간에 길림성과 국경지대 무역을 할 수 있는 북한측 기구는 원래의 함경북도무역

회사, 자강도무역회사, 양강도무역회사 등 3 개에서 능라도무역회사와 회령무역회사가 포함되어 모두 5 개 기구로 되었다. 1987년 북한의 평양을 포함한 전지역의 무역 회사가 거의 다 길림성과 국경지대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간에 요녕성 단둥시변경무역공사도 북한 신의주시무역회사와 국경지대 무역을 하고 있었다.

국경지대 무역에서 서로 교환되는 물자의 종류는 50년대와 60년대에 단지 4~5 개 품목밖에 없었는데, 1982년에는 8 개로 늘어났고 1987년까지 217 개로 늘어났다. 길림성이 북한에 수출한 상품들은 주로 식량(옥수수, 콩 등), 의류, 옷감, 비누, 기름 등이고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상품은 주로 해산물, 쌀, 목재 등이다.

80년대 양측의 국경지대 무역액도 급속히 증가되었다. 길림성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이 회복된 첫 해인 1982년에 양측의 무역액은 103만 스위스 프랑 정도에 불과했지만, 1983년에는 무역액이 1,199.2만 스위스 프랑으로 증가되었다. 한 해 동안에 무역액이 10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1985년에 양측의 무역액은 1억 987만 스위스 프랑에 달하였는데, 이는 1982년보다 100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1989년에 양측의 무역액은 2억 2,856만 스위스 프랑에 달하였는데, 이는 1982년에 비하여 200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표 2〉 참조).

〈표 2〉 80년대의 길림성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액 추이

(단위: 만 스위스 프랑)

연도	무역 총액	수출액	수입액	수지
1982	103	51.6	51.4	0.2
1983	1,199.2	664.5	534.7	129.8
1984	4,445	2,100	2,335	-225
1985	10,987	5,758	5,229	529
1986	8,656	4,472	4,184	288
1987	12,772.4	6,726.7	6,045.7	681
1988	15,796	7,870	7,926	-56
1989	22,856	11,175	11,681	-506
1990	14,802	8,152	6,650	1,502

자료: 길림성 대외무역청.

80년대 길림성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을 보면 1984년, 1988년, 1989년을 제외하면 연도에는 다 길림성측이 흑자를 유지하였는데, 이런 흑자액은 역시 회수하지 못하고 무상 원조로 처리되었다. 80년대에 있어서 요녕성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액은 1981년부터 1987년까지 모두 1.03억 원이며 1988년부터 1989년까지 모두 4,800만 달러이다.

90년대에 이르러 중국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먼저, 길림성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에 관한 결산 방식은 스위스 프랑으로부터 달러로 바뀌었다.

길림성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을 할 수 있는 회사는 80년대 13 개에서 90년대 초에 20여 개로 증가되었다. 1995년까지 국가와 지방의 40여 개 무역 회사는 모두 북한과 국경지대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1996년에 북한과 국경지대 무역을 할 수 있는 회사

는 100 개 이상으로 증가되었다. 이와 동시에 북한측에서도 길림성과 국경지대 무역을 하는 회사는 길림성과 인접한 3 개 도의 몇 개 회사로부터 북한 지역의 국가급 무역 회사로 확대되었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 어느측을 막론하고 90년대 이후의 국경지대 무역은 이미 원래 의미의 국경지대 무역에서 벗어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북한의 순국가 차원, 길림성의 순성 차원의 무역으로 변하였다. 따라서 이런 국경지대 무역은 북한과 길림성 모두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양측의 무역 규모의 확대에 따라 국경지대 무역을 하는 경로도 많아졌다. 지금 길림성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을 하는 철도는 도문~남양, 집안~반포, 개산둔~종성 등 세 군데이고, 도로로는 도문~남양, 사타자~삼봉, 삼합~회령, 장백~혜산, 임강~중강 등 다섯 군데이다.

90년대 이후 길림성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에서 교환되는 상품 종류도 많아졌다. 90년대 초에 교환된 상품 종류가 100여 종류이고 지금까지 200여 종류로 증가하였다. 길림성이 북한에 수출한 상품 종류는 주로 식량(옥수수, 밀가루 등), 사탕, 식용유, 각종 의류와 경공업 제품 등이다. 길림성이 북한에서 수입한 상품으로는 주로 강철 제품, 목재, 화학 비료, 비철 금속, 화학 공업 원료, 해산물, 승용차(주로 북한이 일본이나 동유럽 국가에서 수입한 후 다시 중국에 수출함) 등을 들 수 있다.

90년대 이후 길림성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액은 빠른 속도로 증가되었다. 양측의 무역액은 1991년 9,720만 달러에서 1993년 4.7억 달러로 증가되었는데, 이는 3년 동안에 다섯 배 가까이 증가된 것이다(〈표 3〉 참조).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90년대 이래 길림성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에 있어서 1993년과 1994년의 무역액이 가장 많아 5억

달러에 근접하였는데 1995년부터는 급속히 줄어들었다. 주 원인은 길림성의 정책 변화와 북한측의 경제 상황 악화때문이다

90년대의 길림성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에 있어서 1992년과 1993년을 제외한, 다른 연도의 무역수지는 다 길림성측이 흑자를 내고 길림성측의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더 많다.

90년대 이래 길림성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에서 물물 교환 무역외에 소액의 경화 결제 무역도 하였는데, 경화는 주로 달러와 중국의 인민폐이다.

90년대에 요녕성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도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요녕성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액은 4.5억 달러였다. 길림성의 국경지대 무역과 마찬가지로 요녕성과 북한간의 무역에 있어서도 요녕성의 對북한 수출액은 수입액보다 훨씬 많다. 요녕성이 북한에 수출한 상품들은 주로 식량(옥수수, 쌀 등), 의류, 석탄, 경공업 제품 등이다. 요녕성이 북한에

〈표 3〉 90년대의 길림성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 추이

(단위: 만 달러)				
연도	무역 총액	수출액	수입액	수지
1991	9,720	4,843	4,427	416
1992	21,757	9,792	11,965	-2,173
1993	47,126	22,940	24,186	-1,246
1994	45,400	25,000	20,400	4,600
1995	15,009	8,927	6,082	2,859
1996	11,638	7,559	4,029	3,530
1997.1~7	6,100	3,700	2,400	1,300

자료: 길림성 대외무역청.

서 수입한 상품들은 주로 해산물, 고철, 목재, 약재 등이다.

90년대 이래 길림성·요녕성과 북한간에는 국경지대 무역외에 국경지대 관광 사업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지금 길림성의 도문시~삼지연시, 도문시~나진·선봉시, 요녕성의 단둥시~신의주시, 단둥시~평양시 등 여러 가지 관광 노선이 개통되어 있다.

길림성과 북한간의 互市 무역¹⁾

중국 길림성 정부와 북한 관계 당국의 합의에 의하여, 1997년 6월 17일 중국의 권하와 북한의 원정리 사이에 국경지대 호시 무역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권하~원정리 사이의 호시 무역은 대등의 원칙에 따라 권하와 원정리에 교대로 무역 시장이 서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교통 운수 수단 등의 원인으로 현재 북한의 원정리에만 시장이 서있다. 그렇지만 길림성과 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1997년 6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권하~원정리 호시 무역은 활발히 전개되어왔다.

원정리 호시 무역 시장의 개황

원정리는 북한 함경북도 은덕군에 자리잡

고 두만강가에 있는 자그마한 하구 마을이다. 원정리의 두만강 건너편이 바로 중국 길림성의 훈춘시 권하촌이다. 원정리 호시 무역 시장은 원정리 항구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 시설이 매우 초라하고 길도 잘 정비되어 있지 않다. 시장의 크기는 약 1,000 m²인데 정거장을 제외하고 무역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북판으로 둘러싸인 200 m²밖에 안된다. 그 안에 간편한 작은 건물이 두 채 있고 무역을 하는 중국과 북한의 장사꾼들이 건물 안에서나 옥외에서 불불 교환 형식으로 무역을 하고 있다. 목판으로 둘러싸인 무역 장소의 입구에 북한 관계 부문의 사람이 지키고 있는데, 북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관계 증명서를 제시하고 무역 상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호시 무역의 개황

중국과 북한 양측의 합의에 따라 호시 무역 시장은 일주일에 네 번 개방되고 있으며, 교역 일자 는 화·수·목·금요일이다. 교역을 하는 날에는 중국측의 장사꾼들이 100 대 정도의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오며, 이 차들이 권하 다리를 가득 메워 늘 길이 막히곤 한다. 호시 무역을 하는 중국측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영 업자이고, 국가무역회사 사람도

1) 한국에는 '자유 무역'으로 알려져있는 바, 여기서는 필사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한다(편집자).

조금 있다.

그 가운데 80% 정도는 조선족이고 나머지는 한족이다. 호시 무역에 참가하는 북한측의 사람은 대부분이 국가무역회사의 사람과 어장, 공장, 농장, 상점 등 기구의 대표자인데, 교역 물자는 주로 국가가 분배한 물자이다. 북한 개인 장사꾼도 있지만 그 비율이 매우 적다. 북한 사람들도 역시 자동차 등을 타고 왔다갔다 하는데, 하루에 자동차 수십대가 움직인다.

호시 무역에 참가하는 사람 수는 처음 300 명 내지 400 명 정도였는데, 많을 때는 700여 명에 달하였다. 후에 북한측의 요구에 따라 양측 각 150 명으로 규정하였지만, 교역날에 무역을 하러온 각측의 사람들은 150 명을 훨씬 초과했다. 무역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시장 밖에서 교역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중국 국무원의 규정에 따르면, 호시 무역을 하는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물품 가치는 1,000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호시 무역 시장에서 북한측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중국세관도 세금을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호시 무역을 한 번 하면 적어도 150 원(중국 인민폐)을 벌 수 있다.

호시 무역을 하는 물품들은 중국측에서는 주로 쌀, 밀가루, 의류, 수건, 신발, 술, 맥주, 담배 등이고, 북한측에서는 주로 해산물(냉동새우, 게, 낙지 등)이다. 결산 방식은 주로

물물 교환의 형식인데, 소수의 북한 사람은 달러, 엔, 중국 인민폐도 사용한다. 이때 환율은 북한 당국이 발표한 공식 환율이 아니고 시장에서 적용되는 시장 환율이다. 특히, 호시 무역을 할 때 북한 사람들은 중국 인민폐도 경화로 보고 중국 인민폐로 결산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호시 무역의 장점

중국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호시 무역은 쌍방에 다 유리하다. 북한은 호시 무역을 통해 쌀 등 농산물과 비누 등 경공업 제품을 얻고 있어 북한의 식량 및 일용품 부족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호시 무역은 북한 국경지대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생활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가 기관이나 부문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호시 무역에서 북한측이 한 번에 면수건 1만 매를 샀는데, 이것은 모두 북한 군대에 공급되었다고 한다.

중국측에 있어서 이 호시 무역은 국경지대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지금 중국에서 산업 구조가 개조되고 있어 적지 않은 기업과 공장이 가동 정지 상태에 있거나 가동률이 매우 낮은 처지에 빠져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수많은 종업원과 노동자들이 실직되어 살 길을 다시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직자의 일부는 이 호시 무역을 통하여 재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소득이 기업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게 되었다. 호시 무역을 하면 한 달에 2,500~3,000 원을 벌 수 있고,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종업원과 노동자의 소득보다 몇배 많다. 따라서 중국측에 있어서 호시 무역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 허가증 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북한측에서도 호시 무역을 하러 오는 사람이 많아서 차례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호시 무역을 통하여 중국 국경지대의 상점 창고에 묵혀있던 담배, 술, 식품 등 물자를 북한측에 팔고 상업 유통을 촉진하였다.

마지막으로, 호시 무역은 중국 국경지대의 정세 안정에 큰 기여를 하였다. 호시 무역을 활발히 전개하여 북한 국경지대 주민들이 먹는 문제로 국경을 넘어 중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1997년에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 들어온 북한 난민들은 모두 500여 명 정도였다. 이와 반대로 북한 혜산 건너편의 길림성 장백조선족자치현에 들어온 북한 난민들은 5,000 내지 6,000여 명에 달하였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호시 무역은 국경지대 정국의 안정에 매우 유리하다.

호시 무역의 문제점

현재 호시 무역이 비록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1) 북한측에 호시 무역의 반대 세력이 있다

호시 무역을 반대하는 북한 세력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세무 부문이다. 북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불자들을 호시 무역에서 면세로 교역하여 북한의 현지의 세 수입이 급격히 감소되었다.

둘째, 북한의 대외 무역 부문이다. 호시 무역을 하기 시작한 이후 나진·선봉 등지의 북한 무역 회사가 아무런 무역도 하지 못하고 실업 상태에 빠졌다. 물론, 중국측의 무역 회사도 이런 처지에 빠졌다.

셋째, 북한의 사회 안전 부문이다. 호시 무역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이 수많은 중국인들과 접촉함에 따라, 중국과 세계 정치·경제 등 실정을 알게 되어 사상 변화가 나타났다. 북한 사회 안전 부문은 북한 주민의 사상 변화가 정국의 안정에 매우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호시 무역을 중지하라고 나진·선봉시 북한 노동당 책임비서에 자주 요구한다. 그런데 호시 무역은 북한 중앙 정부가 허가한 것이고 그 우월성도 매우 현저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는 없고, 양측의 호시 무역 참가자 수를 제한하지 않을 수 없게 되

었다.

2) 북한측에 제한 규정이 많다

호시 무역은 북한 국경지대의 경제 발전과 국경지대 주민들의 생활에 큰 기여를 함으로써, 북한 지방 당국과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중국에로의 망명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설정하였다. 예를 들면, 호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진·선봉시에 있는 주민들이어야 하고 다른 지구 주민들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 호시 무역 시장에서 사진을 찍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대등의 원칙에 따라 호시 무역 시장이 마땅히 중국과 북한 양측에서 교대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측이 중국측의 시장을 이용하지 않았다.

3) 북한에 호시 무역을 할 수 있는 물자가 충분하지 않다

호시 무역을 장기적으로 하기 어려운 주요 장애는 북한측에 호시 무역을 할 수 있는 물자가 충분하지 못한 데 있다. 호시 무역은 앞으로 크게 발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 규모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그밖에 교통, 운수 등의 문제도 존재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 전망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이 크게 발전하는 데 있어 기회와 장애가 모두 존재한다. 중국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에 대한 장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주로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실시하여 국경지대 무역에 대한 특혜를 점점 줄여나갔다. 환율을 통일하고 세제를 개혁하였기 때문에, 국경지대 무역을 하는 물자의 원가가 높아지고 세금을 이전보다 많이 내야만 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국경지대 무역의 수익은 날이 갈수록 낮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1995년 이후 중국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액이 감소하게 된 요인이다.

둘째, 북한측에서도 역시 국경지대 무역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북한 경제가 아직 발달하지 못하여 국경지대 무역을 할 수 있는 상품이 매우 적고, 수출 능력이 매우 낮다. 많지 않은 물자를 국경지대 무역에 투입하면 국가 무역을 하는 물자가 없어지고 국가간의 무역을 저해한다. 둘째는 북한측이 외화가 부족하여 경화 결산으로 하는 무역을 할 수 없다. 특히, 계약을 이행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서 국경지대 무역 발전에 큰 장애가 된다.

중국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반면에, 국경지대 무역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도 있다. 첫째, 중국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을 하는 길림성·요녕성과 북한 사이에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완성이 있다. 길림성에서는 옥수수 등 식량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요녕성에서 여러 가지 기계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북한이 매우 필요로 하는 상품이다. 북한에 부존하고 있는 목재와 광산물, 해산물 등도 길림성과 요녕성이 필요로 하는 상품인데, 국경지대 무역을 하는 기초 조건과 잠재력이 쌍방에 모두 존재한다. 앞으로 북한이 대외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면 국경지대 무역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둘째, 북한이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립하고 원정리 호시 무역 시장을 개설하였다. 이것은 국경지대 무역을 크게 발전시키는 데 매우 유리하다. 지금 길림성과 요녕성이 북한에 대한 직접 투자를 하고 있으며, 북한도 길림성과 요녕성에 대한 투자를 조금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 경제의 발전에 따라 쌍방의 투자를 비롯한 경제 협력 사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셋째, UNDP 주도 하의 두만강지역 개발 사업에서 중국과 북한이 상호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양국의 국경지대 무역을 촉진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을 통하여 한국과의 경제 무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예컨대, 지금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의 선박 회사는 이미 북한의 나진항을 임대하고, 한국 부산항까지의 항로를 개통하여 길림성과 한국간의 무역 물자 운수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길림성과 일본간의 무역 물자도 북한의 항구를 거쳐서 대량으로 운송하고 있다. 앞으로 교통 운수 면에 있어서 길림성과 북한간의 협력이 크게 발전할 수 있다.

넷째, 지금 길림성·요녕성과 북한간에 국경지대 관광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앞으로 관광 사업이 가일층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일본·한국·중국·북한·러시아를 망라하는 관광권이 설립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북한 경제가 아직 곤경에 빠져있어 국경지대 무역이 크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 경제가 회복되고 발전되면 중국과 북한간의 국경지대 무역은 반드시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統